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2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8년 전 안우진과는 경우가 다르다...학폭 피해자에 '서면 사과 불이행' 키움 박준현...

스포츠경향 이두리 기자

02

"K-스포츠의 해,아자!아자!가즈아!" 최휘영 문체부장관,국가대표 훈련개시식...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03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아이 보육 지원 확대...생활 속 변화 시작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04

안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좋아요'...시민 만족도 90%

아시아경제 정두환 기자

05

성역화 사업에 효창운동장은 철거 대상?...스포츠의 공간 역사성 생각해야

한겨레 김창금 기자



01

8년 전 안우진과는 경우가 다르다…학폭 피해자에 ‘서면 사과 불이행’ 키움 박준현, 구단 자체 징계도 어렵다

스포츠경향 이두리 기자

2026.01.12.05:34

사진=키움히어로즈

고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은 키움 신인 박준현(19)이 징계에 불응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BO도, 키움 구단도 지금으로서는 박준현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박준현은 지난해 4월 천안 북일고 야구부 동급생인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7월 박준현에게 ‘학폭 없음’ 결정을 내렸다. 폭력 행위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준현은 9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12월 8일 박준현에 대한 ‘학폭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 A군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박준현이 A군에게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면 사과 기한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후 한 달, 즉 지난 8일까지였다.

서면 사과는 학폭위 징계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박준현 측에서는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준현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 사과는 인간적인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조치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고 혼동될 수 있어 서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형식적인 사과도 할 수 없다는 뜻, 학폭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준현 측은 행심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01

행정소송을 걸지 않고 현재의 ‘징계 불이행’ 상태를 유지해도 박준현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으로 인해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지만 1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그 내용이 삭제된다. KBO도, 키움 구단도 박준현의 징계 내용이 곧 생기부에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학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 지명을 받고, 그 이후 교육청 결정 번복으로 인해 학폭 사실이 인정됐으나 시즌이 시작되면 또다시 박준현은 생기부상 ‘학폭 무혐의자’가 된다.

KBO 규약 151조에 따르면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마추어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도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순 없다. KBO 관계자는 “아마추어 야구 쪽(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가 먼저 있어야 KBO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기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키움은 2018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안우진에게 정규시즌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구단의 규정이 없어 ‘자체 징계’ 형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8년 전의 징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다.

"K-스포츠의 해,아자!아자!가즈아!" 최휘영 문체부장관,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적극 지원" 약속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2026.01.07.13:18

사진=스포츠조선

"아자! 아자! 가자! 파이팅!" K-스포츠의 해,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밀라노·코르티나올림픽,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의 해, K-스포츠의 해를 맞아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훈련개시식에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체육인끼리 새해 덕담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새해 국가대표 훈련이 시작되는 뜻깊은 자리에 같이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 올해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평소 같고 닳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력의 경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격을 세계에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러분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당당한 매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높은 국격을 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K-스포츠'의 품격을 심는다"며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과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같고 닳은 희망이 오늘 반드시 이뤄지는 멋진 해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한해 부상없이 후회없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증명할 최고의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자! 아자! 가자!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 김우진(양궁), 최민정(쇼트트랙), 김성진 지도자(근대5종)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과 국가대표의 각오를 밝힌 후 선수, 지도자, 심판 대표(축구 이지형 상임심판)와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이 회원종목단체를,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를,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이 시군구체육회를 대표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K-스포츠 실천 약속'을 함께 낭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아이 보육 지원 확대...생활 속 변화 시작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1.07

사진=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구성되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운영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확대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그간 자유업이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돼 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비용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한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 부담을 낮춘다. 나아가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던 '초등돌봄'을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는 '운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안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좋아요'...시민 만족도 90%

아시아경제 정두환 기자

2026.01.06.10:32

사진=아시아경제

경기도 안산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시가 추진 중인 학교시설 개방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관내 학교시설 개방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운동장, 유휴 교실, 주차장 등을 방과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안산 지역에서는 지난해 37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총 67개교가 시와 협약을 맺고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 개방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67개 학교 가운데, 야간 주차장 개방 학교를 제외한 54개 학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설 이용 만족도는 94.4%,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9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와 비교해 시설 만족도는 14%, 운영시간 만족도는 58% 높아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제시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운영시간 조정 또는 확대 ▲체육관 조명 등 인프라 보완 ▲청결한 시설 유지 ▲급수시설 설치 등이었다.



04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학교와 협의해 현재 대부분 오후 9시까지인 시설 개방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체육관 조명 교체, 급수시설 설치, 외부 보안등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편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관광·문화·체육'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역화 사업에 효창운동장은 철거 대상?…스포츠의 공간 역사성 생각해야

한겨레 김창금 기자

2026-01-08.1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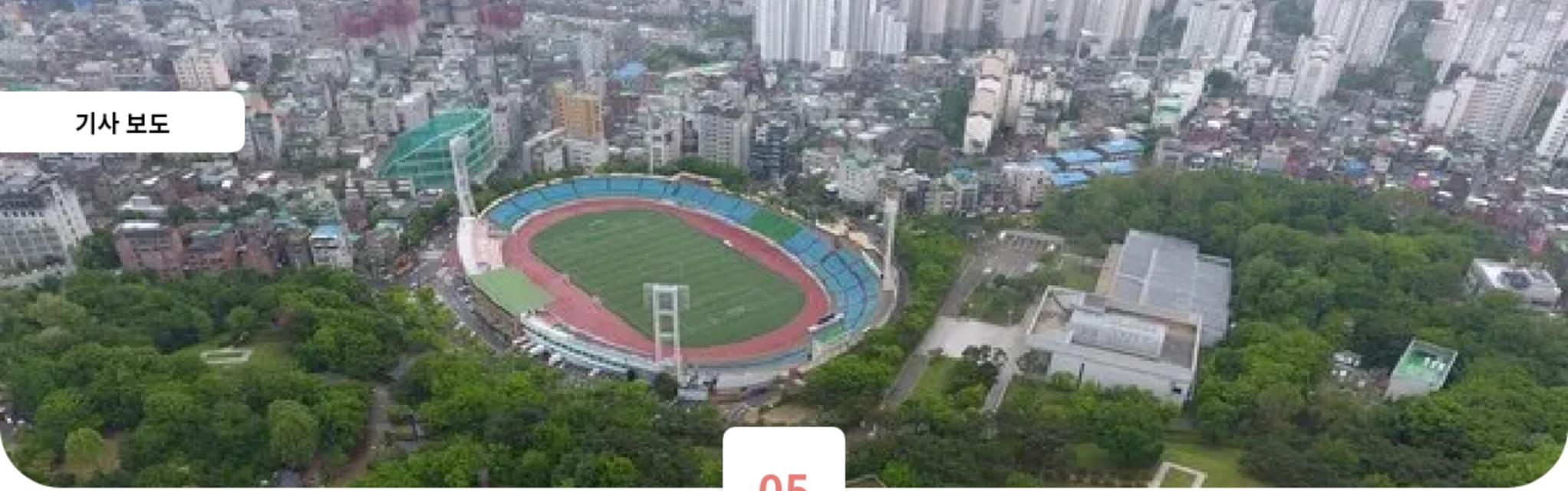
사진=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효창공원의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운동장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면 좋겠는데, 동네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한다”라며 경험담을 소개한 뒤, “민원의 문제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철거 뒤 공원으로 복구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뜻을 전했다. 이전에 논의됐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규모를 묻기도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항일독립투사 여러 명이 묻힌 효창공원이 묘역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추모공간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숨진 분들의 유해를 봉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축구인이나 스포츠문화사 연구자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효창운동장이 해방 이후 국내 최초로 국제대회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인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축구대표팀은 아시아대륙의 챔피언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딱 두 번 우승했는데, 두 번째 우승의 현장이 바로 효창운동장이다.

이종성 한양대 교수는 “이승만 정권이 김구를 비롯한 애국선열 7명(안중근 의사 가묘 포함 8명)의 묘지가 있는 효창공원에 아시안컵 경기장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라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하면서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 축구가 국가 위상이나 지명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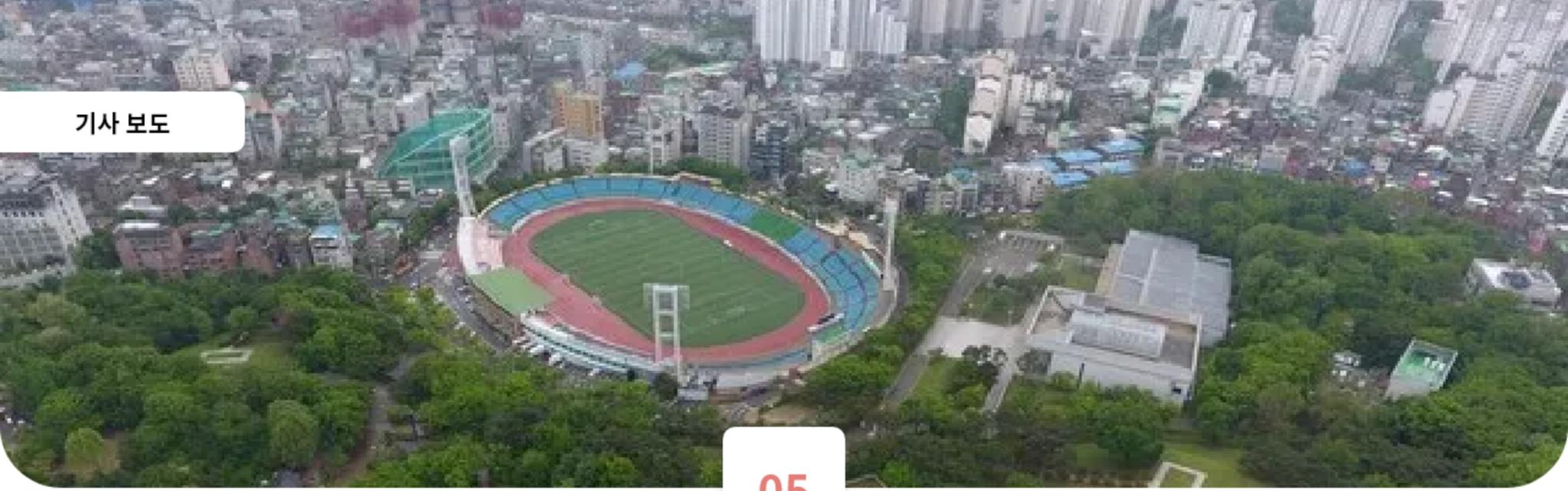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1회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서 2회 대회 개최를 떠맡았다. 막상 대회가 닥쳐오자 자원도,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장 착공에 들어갔고, 대회 개막 직전에 완성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강호인 이스라엘과 경기에는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판매해 좌석보다 2배 이상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21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조잔디가 깔린 효창운동장은 국내 학원축구의 성지 구실을 했다. 축구부 있는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한 번쯤 모교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효창운동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건국대 에이스 이영표 선수를 처음 직접 본 곳도 효창운동장에서다. 워낙 많은 팀이 사용해 인조잔디의 솔이 닳고 닳아서 바닥면이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돼버렸고, 이런 곳에서 뛰다가 무릎을 다쳐 실려 나가는 여학생 축구선수들을 볼 때마다 시설관리자들에게 분개했던 기억도 있다. 요즘에는 서울지역 학원축구 권역별리그나 조기회 등 동호인 축구, 각종 행사를 위해 효창운동장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보면, 시내 시립운동장은 잠실운동장(야구, 축구), 목동운동장(야구, 축구), 효창운동장 정도가 있다. 효창운동장이 사라지면 지가가 높아 공공 체육시설 건립이 어려운 도심에서 스포츠 자산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2014년 동대문운동장(야구, 축구) 터에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현재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자하 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독특한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겠지만, 1925년 건립된 이래 스포츠를 통해 한국인들의 근대 경험과 세계관을 형성해온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조형물을 배경으로 인증샷만 찍는 디자인플라자가 동대문운동장보다 더 큰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지는 의문이다.



05

서울시는 2013년 “1960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경기장”(서울시 누리집)이라며 효창운동장을 미래유산으로 등재했다. 시가 정한 노포나 맛집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효창운동장이다. 효창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지난해 관중 16만5000명), 주변을 산책하다가 김구 선생의 묘역을 발견해 경건한 마음을 새긴다면... 그것이 순국선열을 모신 공간에 진짜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